"초거대 AI 개발 돕는다"…고성능컴퓨팅 서비스 가동

광주 AI사업단, 6월 11일까지 HPC 이용자 모집…중소·벤처기업 등 최신 AI 가속기 'H100' 기반자원·클라우드 방식 HPC 인프라 이용

고성능컴퓨팅(HPC) 기반 AI 데이터센터 서비 스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28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사업단)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AI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통해 HPC 자원 이용자를 오는 6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챗GPT급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 등이 가 능한 데이터 센터 이용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AI 모델 개발과 산업융합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이용 기간을 기존 분기 단위에 서 반기(6개월)로 확대했다. 장기 프로젝트와 대 규모 모델 학습을 대비한 AI사업단의 조치다.

선정된 기관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HPC 인프라 를 이용할 수 있다.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 'H100'을 기반으로 하는 제공자원은 1PF(페타플롭스)부터 최대 3 PF까지 탄력적으로 배분한다.

AI 개발에 최적화된 환경도 함께 제공되며, 쿠다 (CUDA) 등 맞춤형 개발환경 설정도 가능하다. 디 도스(DDoS) 대응, 웹소켓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과 신뢰성도 강화했다.

HPC 제공 서비스는 단순한 연산 자원 제공을 넘어, 대규모 AI 학습이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한 다. 국내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정교하고 혁신 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것

모집 대상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기 관, 공공기관, 협·단체 등이다. 개인과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AI사업단이 지원 중인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양식과 세부사항은 AI사업 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정된 기 업에는 7월 1일부터 자원이 제공된다.

오상진 AI사업단장은 "이번 HPC 자원 이용자 모집은 국내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국내 AI 스타트업 과 연구기관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구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투표는 힘! 민주주의 배달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센터에서 택배·배달 노동자들과 만나 투 표 참여 협조와 노동환경 개선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AI사관학교, 전문가 과정 돌입

330명 7개월간 교육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6기 교육생 330명이 AI 전문가의 꿈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고흥 선밸리리조트에서 'AI 사관학교 제6기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AI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 단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국내 대표 AI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788명이 지원해 330명을 선발 했다. 교육은 인공지능 모델링, AI 기반 서비 스, AI 플랫폼 및 인프라, AI 데이터, AI 비즈니 스 등 5개 분야·7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6월2일부터 12월12일까지 집중 교육 (총 1300시간)으로 실시된다. 교육생들은 개인의 역량과 진로에 따라 10개 반으로 나눠 배치되며, 이론・실습・프로젝트 등 현장 중심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는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우수 교육생 4명에게는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 중 하나인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 참가 기회 도 주어진다.

한편 지난 2020년 1기 개설 이래 5년간 총 1221 명의 AI 인재를 배출했다. /정병호기자 jusbh@

전국 수의학 전문가, 광주서 최신 동물질병 연구 공유

내일까지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대회…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등 논의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전국 전문가들 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광주에서 열린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47차 한국동물위생학 회 학술발표대회'가 29~30일 이틀간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개최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주관인 이 번 학술대회는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수 의·연구직 공무원, 수의과대학 교수, 수의학계 주 요 관계자 등 360여 명이 참석해 수의학 분야의 연

구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다.

학술대회 주제는 '원헬스(One Health·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연결돼 있다는 개념), 수의사 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신종질병이나 해외 유입 동물 질병에 대한 방역 대책, 축산물의 안전성 확 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

기후변화와 동물질병, 축산과 식품안전, 수의사 의 도전과 기회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된 학술발

표에서는 총 81편의 연구가 발표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도 '광주지역 야생비둘기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 감염 실태 조사'와 '광주 지역 도축장 돼지에서의 척추농양 병변 원인체 분 석'등 지역 동물질병 관련 연구 성과 2건을 발표

질병관리청, 수의과대학 교수진,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대표 등의 기조강연·초청 특강도 마련 돼 있고 행사 종료 후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자율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출산맘 나눔가게 1호점 양동으로 이전

2호점은 광산구 송정동

광주지역 출산 가정을 돕기 위한 '출산맘 나눔가 게 1호점'이 남구 진월동에서 서구 양동으로 이전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 출산맘 나눔가 게 1호점이 새롭게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변경은 보조사업자 선정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2호점은 기존과 같이 광산구 송정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산맘나눔가게는 출산·육아용품을 기부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무료 나눔 매장으로 젖병・아기의류 등 소형 물품부터 유모차 카시트 등 대형 용품까지 다양한 출산・육아용품이 기부와 나눔으로 순환되 고 있다.

시민 누구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나눔을 신청할 수 있다. SNS와 출산맘 나눔가게 홈페이지를 통 해 온라인으로도 물품 현황을 확인하고 나눔 신청 이 가능하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운영된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무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대상에 해남 '땅끝햇살'

최우수상에 장흥 '아르미쌀' 10개 브랜드 중 9개 새청무

전남도가 전남 최고의 쌀로 해남 '땅끝햇살'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28일 "해남 땅끝햇살을 비롯해 '2025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 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브랜드쌀 평가를 열고 해남 '땅 끝햇살'에 대상을 수여했다. 이어 최우수상에 장 흥 '아르미쌀'이 선정됐고, 우수상에 영암 '달마 지쌀',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나주 '왕건이 탐 낸 쌀', 장려상에는 무안 '황토랑쌀', 순천 '나누 우리', 강진 '프리미엄호평', 함평 '우렁색시미', 진도 '보배진미쌀' 등 10개 브랜드가 이름을 올 렸다.

전남도는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전문 분석 기관과 함께 식미평가, 외관품위, 품종혼입과 기 계품질,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순위를 정했다.

해남 '땅끝햇살'은 모든 평가 요소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단일품종 증가율, 수 출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선정된 10개 브랜드 중 9개의 품종은 전남 도가 개발한 새청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생청무 의 품질과 맛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새청무쌀은 전남도가 지난 2016년 개발한 품종 으로 찰기가 돌고 윤기가 흐른다. 특히 재배 안정 성이 뛰어나 농업인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 재 전남 재배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품

전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10개 브랜드에 대해 총 1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